

축평원 지원 특화 힐링 프로그램

첫 번째 이야기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고객홍보처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일·가정 양립을 통한 Fun Fun한 직장문화 구현을 위해 2018년 가치체계 한마음교육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다. 내부 직원 간의 소통 강화를 통해 직원의 애사심과 유대감을 높이고자 추진된 사업이다.

이 중에 지원 특화 힐링 프로그램이 있다. 전 직원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소속별 직급별 벽을 완화하고 서로 어울리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각 지원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앞서 사업 주최인 축산물품질평가원 경영지원처는 상·하반기 지원별 특화 힐링 프로그램 계획을 공모하여 완성도와 직원의 관심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프로그램이 4월 5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실시됐다.



축평원 지원 특화 힐링 프로그램, 그 첫 번째.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나~!”

완연했던 봄 날씨가 하루 새 얼굴을 바꾼 날, 비바람을 헤치고 홍익대학교 인근의 한 소극장으로 속속 사람들이 모였다. 정갈하게 준비된 다과로 미리 기운을 충전한 이들은 모두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직원들(언론계 참가자 1인 제외). 목요일 저녁, 누적된 한 주의 피로와 쏟아진 비가 발을 무겁게 했지만 마음만은 대학시절로 돌아간 듯 왁자지껄 했다.

그런데 웬걸. 충분히 볼 볼은 듯 했던 이 모습은 아직 50% 정도였나 보다. 배우 2명이 작품 시작에 앞서 설명하는 상황을 듣다 보니 이들은 대학이 아닌 고등학교 시절로 회귀해 있었다. 심지어 이날 참석자 중 최고위직인 주관 경기지원의 이상근 지원장은 5살로 제일 막내가 되었다.

이게 무슨 빗길에 슬라이딩 하는 소리인가 싶을 것 같다. 설명을 더하자면 축평원의 첫 번째 지원 특화 힐링 프로그램인 경기지원의 프로그램은 “관객 참여형 연극”을 통한 KAPE인 화합 문화행사”였다. 말 그대로 관객, 즉 축평원의 직원들이 연극에 직접 참여해 극의 전개를 함께 해 나가는 특별한 무대를 통해 축평원 내부 소속별·직급별 벽을 완화하고 함께 어울리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극의 기본 설정에서 관객은 모두 고등학생, 배우들의 후배다. 그리고 일부 배우들에게 선발되어 오프닝 공연을 함께하게 된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자신이 희망하는 배역을 맡았다.

대표적인 예로 ‘꽃’이 되길 희망한 정유미 인턴은 무대 한쪽에서 씨앗부터 꽃의 모든 성장 과정을 몸으로 표현하게 됐다. ‘바람’이 되길 희망한 정주현 대리는 오프닝 공연의 극 전개 내내 “휘이~”거리며 무대를 뛰어 다니는 역할을 맡았다. 공주가 되길 원했다가 ‘또라이’가 되거나 ‘산’이 되길 원했다 동음이의어인 ‘신(발)’이 된 사람도 있었지만, 어쨌든 다들 큰 틀에서 원했던 연기를 하게 됐다.

물론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극의 전개상 꼭 필요한 등장인물을 배정받은 이들도 소수 있었다.

‘트랜스하면서 젠더한 느낌’(?)이 있다는 이유로 홍주영 대리는 여주인공 역으로 발탁됐고, 최동희 과장은 남주인공인 불륜남 역할을 맡아 함께 불꽃 연기를 선보였다. 이들의 김치 한 포기 손에 쥐어 주고 싶은 막장 연기를 아우르는 내레이션은 “아” 한마디로 사전 테스트를 단번에 합격한 유호선 과장이 맡아 했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내부 직원 간의 소통 강화를 통해
 직원의 애사심과 유대감을 높이고자 2018년
 가치체계 한마음교육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다.



호응이 컸던 논리에 따라 5살 아역배우 역은 극의 전개상 최고로 중요하다는 역할의 중요성에 따라 최고위직인 이상근 지원장이 맡았다.

이러다보니 극의 전개는 산으로 갔지만 직원들이 직접 참여한 무대인만큼 모두 웃다 지칠 만큼 신나게 즐겼다. 그리고 축평원의 직원들은 오프닝 공연 후 이어진 무대들에서도 허를 찌르는 멘트로 배우들을 당황하게 하거나 미리 설정되지도 않은 즉석연기에 뛰어들어 오하려 배우들을 압도하는 등 넘치는 끼를 보여주었다.

직원들이 그간 감춰뒀던 기와 역량을 마음껏 발휘한 연극 무대 뒤로는 도심 속 미니 캠핑을 컨셉트로 한 고기구이 식당에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 직원 간 교류와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캠핑 컨셉트였기에 캠핑의자 혹은 뒤집은 플라스틱 음료 상자에 앉아 격식을 걷고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경기지원의 송민근 대리는 “들었을 때 신선함 반, 궁금함 반이었는데 와보니 재밌고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을 했다”며 “꼭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된다. 이런 자리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지원을 대표해 참석한 직원 중 현훈준 과장은 “경기지원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고, 이렇게 여러 직원들과 소통을 하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 더욱 좋았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행사를 기획한 신호진 과장은 “흔히들 직장에서 하는 워크숍 행사는 딱딱하고, 지루하다는 편견이 있는 게 사실인데, 저희는 ‘왠지 땡기는 그런 워크숍’을 만들면 멀더라도 동료들이 기분 좋게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흥대 앞+연극+도심 속 캠핑장이라는 컨셉트로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며 “경기지원 뿐 아니라 인근의 서울지원과 세종 본원의 동료들까지 자주 볼 수 없었던 동료들과 함께 무대에서 연기도 하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경기지원 이상근 지원장은 “올해 지원 힐링 프로그램 행사의 첫 포문을 우리 경기지원이 열게 되었다. 이후 전국 지원에서 이러한 행사가 연달아 열릴 예정인데, 서로에게 힘이 되는 동료애를 쌓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했다. 